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1. 2.



국립국어연구원, 정책 연구의 기틀을 놓다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기록적인 한파가 온대. ‘데’와 ‘대’

국어원 소식(1)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우리말 다듬기(1) 누구라도 갖고 싶을 매력상품

100년 전 우리말 풍경 개항 직후, 어떤 물건들이 수입되었을까?

기획 행사 국립국어원 30돌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비대면으로 설을 쇠다- ‘쇠다’와 ‘뵈다’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고슴도치의 거리

사전 두 배로 즐기기 국어원이 펴낸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국어원 소식(2) 개원 30주년 기념 축하말 영상

우리말 다듬기 집단 지성의 힘 발상 모으기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민자와의 공존을 위한 새 걸음



목차

쉽표, 마침표. | 2021. 2.

국어 배우기

- 2 실전 국어 표기법 기록적인 한파가 온대. ‘데’와 ‘대’
- 4 비대면으로 설을 쇠다- ‘쇠다’와 ‘뵈다’
- 6 읽기 좋은글, 듣기 좋은말 고슴도치의 거리
- 10 사전 두 배로 즐기기 국어원이 펴낸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국어 알리기

- 14 국어원 30년 국립국어연구원, 정책 연구의 기틀을 놓다
- 16 국어원 소식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 18 개원 30주년 기념 축하말 영상
- 20 우리말 다듬기 누구라도 갖고 싶은 매력상품
- 22 집단 지성의 힘 발상 모으기

국어로 바라보기

- 24 100년 전 우리말 풍경 개항 직후, 어떤 물건들이 수입되었을까?
- 28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민자와의 공존을 위한 새 걸음

국어로 함께하기

- 36 기획 행사 국립국어원 30돌을 축하해 주세요.
- 38 국립국어원 30돌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40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44 독자 참여 행사



기록적인 한파가 온대. '데'와 '대'



회사에서도 내내 추위 이야기뿐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한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어요.

'-데'와 '-대'의 구분

문장 끝의 '데'로는 '-데와' '-는데'가 있습니다. '-데'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는데'는 어떤 일에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거나, 대답을 기대하며 물어볼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문장 끝의 '대'로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인 '-대'와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대'가 있습니다. 의문을 나타낼 때는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습니다.

-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직접 경험) • 그 친구는 아들만 돌이데. (직접 경험)
-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 나무가 정말 큰데. (감탄) • 형님이 정말 동안이신데. (감탄) • 그 옷은 얼만데? (대답 기대) •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데? (대답 기대)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아주 똑똑하대. (-다고 해) • 철수도 오겠대? (-다고 해) • 왜 이렇게 일이 많대? (의문) •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 (의문)
-----------	--

“기록적인 한파가 온대.”

데 와 대

아니 웬 눈이 이렇게 온대?

오늘은 새벽부터 함박눈이 내렸어요.

날이 꽤 추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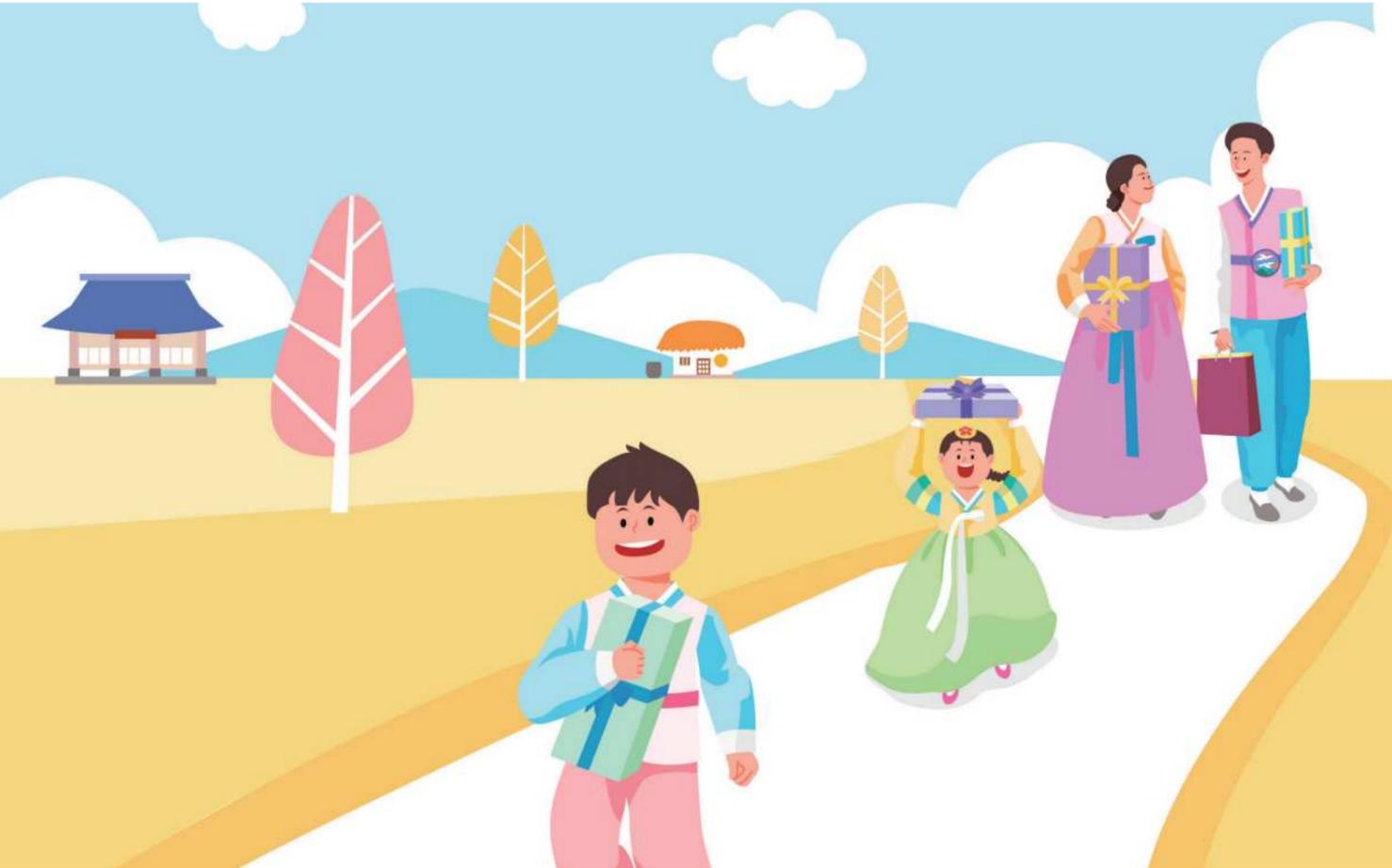
35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죠.

배고프다. 형은 언제 온대?

벌써 집에 왔는데. 씻고 바로 올 거야.

날씨가 춥더라도 바른 생활로 건강을 지키고, 바른 국어 표기법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비대면으로 설을 쇠다 '쇠다'와 '뵈다'



작년에는 직접 찾아뵈었는데 올해는 영상으로 얼굴을 뵈고 설을 쇠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뵈지는 못해도,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드렸어요.

'쇠다'의 활용형 '쇄'

쇄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아 지내다

- 내일은 아버지 환갑을 쇠 겸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갈 거야.
-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설을 쇠고 나면 몸무게가 늘어.

쇄

'쇠-'+'-어'가 들어든 말

- 지난해에는 고향에 안 가고 서울에서 설을 쇠었어요(=쇠었어요).
- 이번 시어머니 생신을 잘 쇠(=쇠어) 다행이다.

'뵈다'의 활용형 '뵈'

뵈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

- 선생님 얼굴을 뵈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 그럼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

*'뵈다'는 '뵈다'보다 더 경량의 뜻을 나타냅니다.

뵈

'뵈-'+'-어'가 들어든 말

- 큰아버지를 정말 오랜만에 뵈(=뵈었)지.
- 언제 다시 뵈(=뵈어)요?



설날은 떨어져 지내는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매년 설이 되면 우리 가족은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모여 설을 쇠어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설을 쇠었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추억이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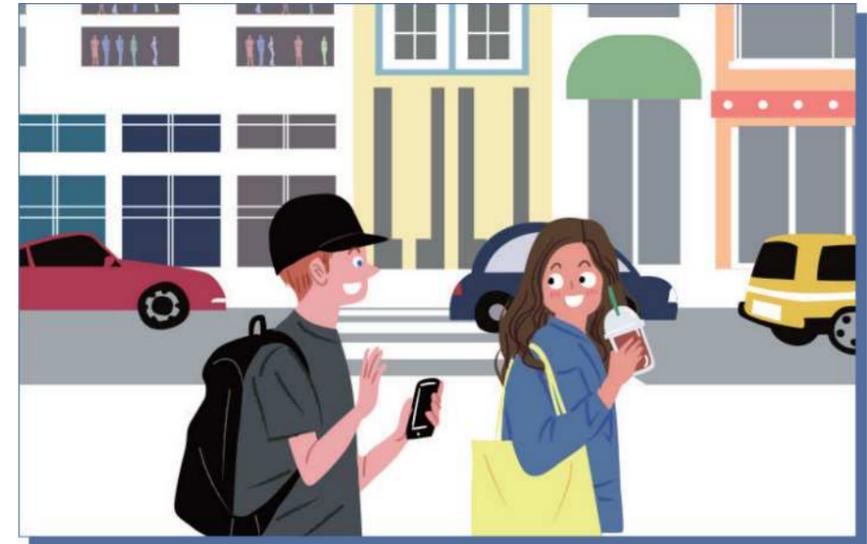
고슴도치의 거리



글: 이미향(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최근 방송에서 많이 듣는 말이다. 한류를 타고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외국인이 매운 음식을 두려움 없이 잘 먹거나 한국어 관용구를 감칠맛 나게 쓰면, 곁에 선 한국인이 칭찬처럼 이렇게 말한다. 감탄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한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들을 사람 처지에서도 긍정적일까? 사실 비교군이 될 ‘한국 사람’의 특징도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 사람이 다 된 것’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 같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국인이 사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 문화 비교 연구가 있다. 호프스테더[Hofstede(1981, 1991)]는 53개국의 문화를 개인주의 지수, 권력 차이 지수, 불확실성 지수, 남성성 지수로 비교하여 한국 문화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정리했다. 한국은 집단적 문화권, 위계질서를 지키는 문화권,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안전성과 겸손함을 요구하는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특성이 한국 사람의 표현 방식에 어떻게 녹아 있을지 좀 더 찾아보자.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말은 고빈도어다. ‘내 것’을 ‘우리 것’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많지 않은데, 한국어에는 ‘우리 마누라’도 있다.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구호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그때의 ‘우리’란 ‘남’과 구별되는 이중적 의미로 쓰이지만, 이 외침이 집단주의의 증거인 것은 분명하다. 이때 집단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권위를 부여한다.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권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비교적 제약이 없다. 그리하여 ‘어디에 사느냐’, ‘왜 거기서 사느냐’, ‘결혼은 했느냐’, ‘어쩌다 아직 안 했느냐’ 등의 질문도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화된다. 안정성과 겸손함을 지향하는 문화에서 아랫사람은 그런 질문 앞에서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편이다.



문득 고슴도치의 거리가 떠오른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시 탓에 고슴도치는 동족과 가까이 붙지 못한다. 서로 찢리지 않으면서 온기를 나눌 적절한 거리, 이를 ‘고슴도치의 거리’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다.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에다가 안정성을 지향하는 문화에서 자란 한국인에게 적절한 거리 두기란 애초 희박한 개념이다. 그런데 2020년,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닥쳤다. ‘사회적 거리, 자가 격리’라는 말이 긍정적 가치를 담아 등장한 것이다. 격리란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떼어 놓는 것으로, 사실 어쩔 수 없을 때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익숙할뿐더러 유치원생도 다 아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두는 거리’가 남에 대한 배려를 함의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거리 두기’에서 배운 긍정 의미를 준거로, 그간 한국어에서 친절과 관심으로 미화된 표현을 돌아보자.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이에게 ‘결혼은 언제 하니?’, ‘그래, 취직 준비는 잘 되어 가?’, ‘살 좀 찼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까운 사이라서 할 수 있는 인사말인가? 선한 의도로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두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선 가해자 고슴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너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숙제가 남는다. 언어예절이란 친밀과 평등의 정도에 따라 격식성과 화제거리를 조율하며 다가가는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과 정치, 종교, 사생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자신을 노출하는 정도도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야 한다. 자아 노출(Self-disclosure) 이론에서는 인간관계에 따라 자신을 적절히 노출하는 것이 곧 인간관계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한다. 화제거리가 사실 정보, 기호, 의견, 신념 순으로 갈수록 자아를 노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치자. ‘우리 회사에서 휴가를 며칠 쓸 수 있어?’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이지만, ‘이번 휴가에 뭐 해?’는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이다. ‘자고로 휴가란 대자연에서 보내야지.’, ‘휴가를 집에서 빈둥거리며 보낼 수는 없지.’와 같은 말은 자신의 기호와 의견, 신념까지 노출하는 말이다. 이쯤에서 ‘한국 사람 다 되었다.’를 다시 보면, 그것은 한국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호와 신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다. 자아 노출 이론에서는 상대가 노출하는 정도에 맞추어 자신을 보여 주라고 조언한다. 인간관계에 맞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많이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날지도 모른다.

달변가들은 이 세상에 말하기는 두 가지뿐이라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말하기와, 상대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하는 말하기가 그것이다. 말을 과하게 해서 일을 그르쳤다는 속담은 무지 많다. 오늘은 자기만족에서 한 걸음 물러서, ‘거리 두고 말하기’를 연습해 보자. 배려와 관심 사이에서 최적의 거리는 얼마만큼인가? 그 답은 고슴도치가 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조금씩 다가서면서 함께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국어원이 펴낸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글: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글을 읽고 쓰다가 뜻을 잘 모르거나 맞춤법이 헷갈릴 때 찾아보는 것이 국어사전이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찾든 나오는 검색 결과는 ‘국어사전’ 및 기타 사전의 내용이다. 이처럼 사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전에는 맞춤법이나 뜻뿐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사전을 제대로 안다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즐길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러한 국어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종이사전으로 발간한 후 현재는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2016년에는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을 개통하였다. 앞으로 이 두 사전의 특징, 담긴 내용, 활용법 등을 몇 차례에 나누어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사전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한다.

요즘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인용하여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그만큼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편찬된 사전이다.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 어문 규범이 있지만, 일반 원칙 중심으로 기술된 규범만으로는 실제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러한 규범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국어 생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1999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종이사전으로 발간되었고, 이후 2008년 개정판부터는 [인터넷 사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나 일반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교과서 편찬이나 언론 보도문 작성, 공문서 작성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국어대사전”은 바른 우리말의 지침서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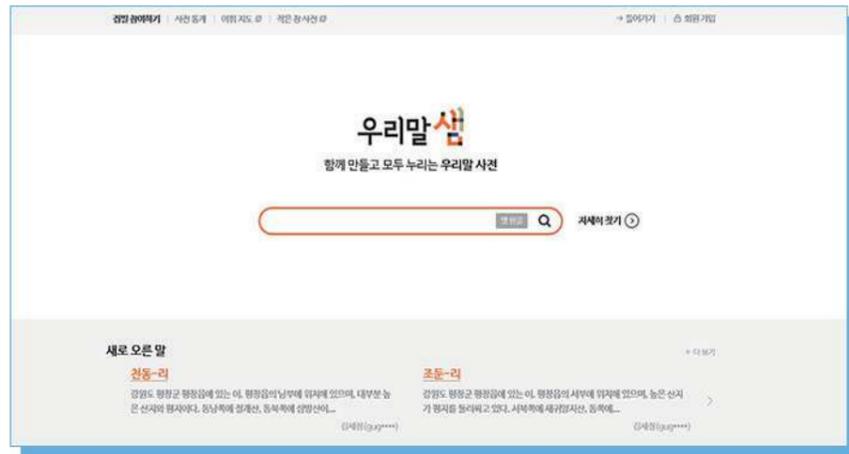
▲ 표준국어대사전(1999)



▲ 표준국어대사전(2008)

이처럼 “표준국어대사전”이 우리말 사용의 지침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해하는 부분도 생겼다. 가장 큰 오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말은 모두 다 “표준”이니 써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말들은 규범에 맞게 표기를 정하여 올렸으므로, 그런 면에서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쓰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말의 일부이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당연히 실린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표기가 맞춤법에 맞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사기꾼’이라고 했다가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는 ‘사기꾼’의 의미와 사용 맥락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전 등재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나 그 말이 사용되는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표준” 또는 “규범”을 중시했던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우리말샘](#)”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을 다 담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사전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찾아보는 유행어나 신조어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이러한 말이 아직 우리말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나온 것이 “우리말샘”이다. “우리말샘”은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을 최대한 담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쓰였던 우리말까지 모두 모음으로써, 우리말을 집대성하는 그릇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말샘”은 누구나 사전 편찬과 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전이다. 아직 사전에 없는 말을 누구나 직접 작성하여 등재함으로써 우리말을 모으고 알리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우리말샘](#)

앞으로 정돈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찾고 싶을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고,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우리말샘”을 찾아본다면 일상에서 우리말을 조금은 더 편하게 쓰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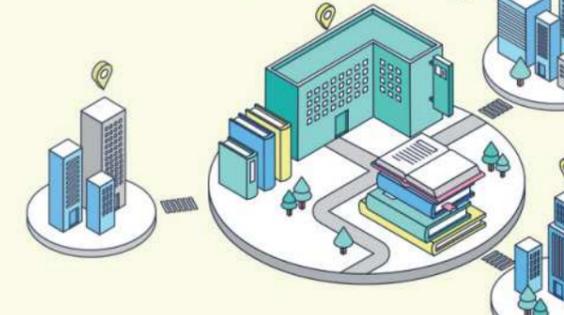
국립국어연구원, 정책 연구의 기틀을 놓다



국립국어원이 올해로 30돌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은 대중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을까요?

‘국어원 30년사’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국어 정책 연구의 기틀을 놓은 ‘국립국어연구원’ 을 살펴봅시다.

국립국어연구원, 정책 연구의 기틀을 놓다



광복 이후 국가적 어문 정책의 필요성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보급

우리말 다듬기

표기법 정비

비문해 퇴치

나라를 되찾은 후에도 일본어를 사용하거나 바른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민 소통을 위한 우리 말글의 정비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기능을 수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관

-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 1984. 1. 「로마자 표기법」 제정
- 1986. 1. 「외래어 표기법」 제정
- 1990. 1. 문화부로 소속 변경
- 1988. 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제정 (시진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서울시 종로구 은니동)
- 1999. 11. 「표준국어대사전」 (상·중·하 3권) 완간
- 2000. 8. 청사 이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2004. 11.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국가 기관에서 어문 규정의 연구와 보급을 수행한 것은 국어 생활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연구원 1991년~2004년 시기의 주요 정책 사업

사전 편찬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1999년
-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사전 제공 2002년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 계간지 "새국어생활" 창간 1991년
- "가나다전화" 개통 1991년
- "국어문화학교" 운영 시작 1992년
- 월간지 "새국어소식" 창간 1998년
- "온라인 가나다" 시작 2000년

남북 언어 통합

- 북한 언어 현황 보고서 36건 발간 1992년
- 남북간 공동 학술회의의 지속적 개최 1996년
-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 1998년

국립국어연구원 1991년~2004년 시기의 주요 정책 사업

한국어 세계화

- 한국어 교원 연수 1992년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사업 실시 1992년
-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1993년

국어 정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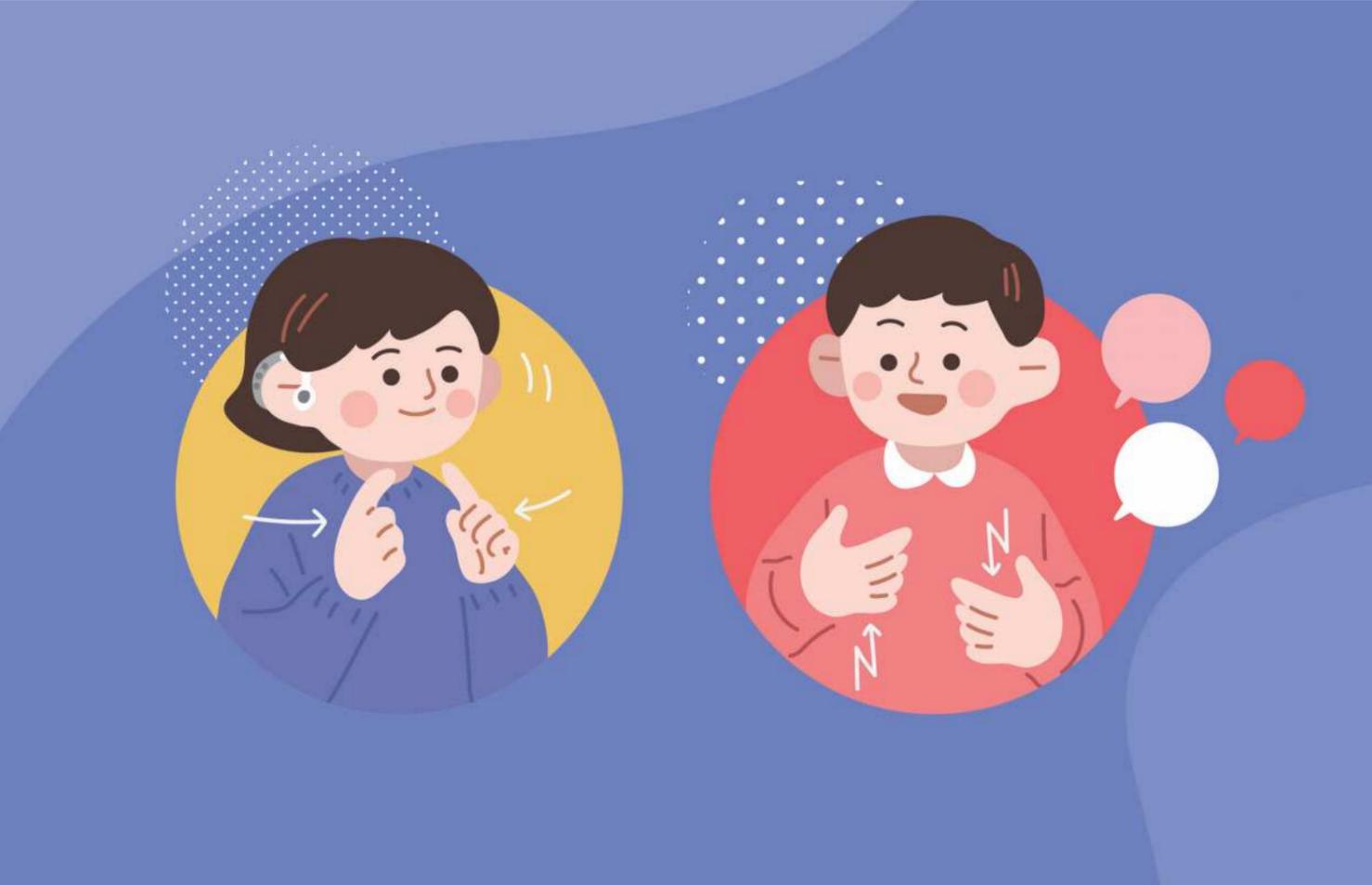
- 21세기 세종 계획 1998년
-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계획 2000년
- 한글 100대 문화유산 선정, 현대어 번역 사업 2003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은 한민족 국어 생활 정책의 기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걸어온 30년 역사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언어정보화 분과 사업(2006)」,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년사(2012)」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이하 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수)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해 9월,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로써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에서는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어사전, 수어 교재 편찬 등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한국수어의 날 기념 토론회도 개최된다.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추진, 한국수어 주간(2. 1.~7.) 운영

문체부는 한국수어 정책 주관 부처로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수어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정부 정책 발표나 코로나19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알 권리를 향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고 수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2월 3일, 개편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을 공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수어 주간에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그림엽서, 동영상 등을 공모한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제1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온라인 참여 잇기(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행사를 진행(~2. 3.)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발표 때 수어통역을 제공한 이후로 수어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 이제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수어의 날을 계기로 일상 곳곳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의 언어 사용 권리도 함께 신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개원 30주년 기념 축하말 영상



국립국어원의 발자취가 궁금하다면 새 꼭지인 [‘국어원 30년’](#)을 읽어 보세요!

2021년은 국립국어원이 30돌을 맞는 해입니다.

《쉽표, 마침표.》 독자 1,139분께서 국립국어원 개원 기념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독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즐겁게 감상하시고,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쉽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갖고 싶은 매력상품

우리말
다듬기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누구라도 갖고 싶은
매력상품

잇아이템

물건을 살 때 종류가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그럴 땐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의 품평을 보고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잇_아이템_대체어_매력상품
파워_블로거_대체어_유명_블로거

유명블로거가 사용하는 매력상품을
눈여겨보았다가 같은 제품을 사는 것이죠.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이 색상
정말 예쁘네!

매력상품이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상품 혹은 각광받는 물건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재를 뜻해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주로 유명블로거의
누리소통망에 게시되며 알려지죠.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SNS_대체어_누리소통망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누리소통망에서
매력상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이 옷 정말
매력상품이에요!

유명 블로거가
추천해 주니
믿음이 가네요.

올해는 쉬운 우리말을 쓰는 유행도
함께 이끌어 보세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오늘의 다듬은 말

- 잇아이템 > 매력상품
- 파워블로거 > 유명블로거
- SNS > 누리소통망

집단 지성의 힘 발상 모으기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브레인스토밍_대체어_발상_모으기

창의적인 생각을 얻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상 모으기**가 있어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다 보면 기발한 착상이 떠오를 때가 있죠.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마인드맵_대체어_생각그물

발상 모으기는 브레인스토밍을 다듬은 말로 자유로운 토론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일을 뜻해요.

이때 무작정 새로운 의견을 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생각그물**로 여러 생각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포스트잇_대체어_붙임쪽지

붙임쪽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생각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요.

여러 사람의 엉뚱한 생각을 모아 새로운 시도로 바꾸어 주는 **발상 모으기!**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여러 생각을 모으면 알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말**도 더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의 다듬은 말

브레인스토밍 **발상 모으기**

마인드맵 **생각그물**

포스트잇 **붙임쪽지**

개항 직후, 어떤 물건들이 수입되었을까?



글: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는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100년 전 한국어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어휘는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개항 이후 서구의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일상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개항 직후의 수입품 목록은 1883년에 작성된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관세 규정과 같은 해 조선과 영국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의 관세 규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관세 규정은 수입품에 대한 것과 수출품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수입품’이나 ‘수출품’이라는 용어 대신 항구로 들어오는 상품과 나가는 상품이라는 뜻으로 ‘진구화(進口貨)’, ‘출구화(出口貨)’라는 중국식 한자어를 사용했다.

朝鮮國海關稅則		第一藥材諸藥及香料		進口貨	
樟腦	各種膠	白卷	諸藥類	值百抽五	值百抽八
		麝香	丁香	龍腦	值百抽十
				乳香	值百抽五
其他香類	線香	甘松	白檀	沈香	值百抽十
				安息香	值百抽五
					值百抽十
					值百抽十

▲<그림 1> 1883년 조선국해관세칙(朝鮮國海關稅則):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관세 규정

관세 규정에 나타난 수입품의 목록은 물품의 종류와 관세율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먼저 그 종류를 살펴보면 약재 및 향료, 염색 재료, 금속류, 유지(油脂), 직물, 문방구 및 종이, 음식물 및 연초, 잡화 등이 있었고, 관세율은 5%~30%였다. 농기구, 수술폰 도구, 책, 지도, 신문, 측량 기구, 활자 등 면세품도 일부 있었는데 여행자의 짐 가방도 면세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수입되던 물품과 영국에서 수입되던 물품 중에는 공통적인 것도 있었는데, 일부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기를 ‘촬영기(攝影器)’로, 벽시계를 ‘시진종(時辰鐘)’으로 쓰는 등 오늘날의 명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883년 일본과 영국에서 수입된 공통 물품

뜻	대일본 수입품		대영국 수입품	
	목록	관세율	목록	관세율
성냥	自來火(자래화)	5%	自來火(자래화)	5%
비누	石鹼(석감)	5%	胰皂(이조)	5%
치약	磨牙粉(마아분)	8%	磨齒粉(마치분)	10%
우산	蝙蝠傘(편복산)	10%	網傘(주산)	10%
사진기	攝影器(촬영기)	10%	攝影器(촬영기)	10%
맥주	麥酒(맥주)	10%	皮兒(피아)	10%
벽시계	時辰鐘(시진종)	20%	時辰鐘(시진종)	10%
브랜드	撲蘭德(박란덕)	30%	撲蘭德(박란덕)	20%
위스키	惟斯吉(유사길)	30%	惟斯吉(유사길)	20%

수입품 목록의 ‘자래화(自來火)’는 유럽의 성냥을 부르던 중국식 한자어로, 문자 그대로의 뜻은 ‘스스로 오는 불’이다. 부싯돌로 힘들게 불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 불씨를 지키던 사람들이 살짝 긁기만 해도 순식간에 불이 붙는 신식 성냥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을 편리함과 신기함을 엿볼 수 있는 명칭이다. 신식 성냥은 이후 ‘딱성냥’, ‘당(唐)성냥’, ‘양화(洋火)’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비누는 일본과의 조약문에는 ‘석감(石鹼)’으로 쓰였고 영국과의 조약문에는 ‘이조(胰皂)’로 쓰였다. ‘석감’은 일본식 한자어로, 원래는 잿물을 밀가루로 굳힌 재래식 비누를 뜻했다. 그러다 유지(油脂)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 서양식 비누가 들어오며 의미가 변화해 신식 비누를 나타내게 되었다. 영국과의 조약문에 쓰인 ‘이조’는 중국식 한자어로, 무환자나무의 열매를 갈아 만든 재래식 비누를 뜻했는데, ‘석감’과 마찬가지로 후대로 오며 서양식 비누를 뜻하게 되었다. ‘이조’라는 표현은 이후 한국 문헌에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석감’은 ‘비누’와 함께 널리 쓰였다.



▲<그림 2> 1925년 7월 14일 『조선일보』에 실린 ‘구라부석감’ 광고. 한자로 ‘石鹼(석감)’이라고 쓰고 ‘비누’를 병기했다.

치약은 일본과의 조약문에는 ‘마아분(磨牙粉)’으로, 영국과의 조약문에는 ‘마치분(磨齒粉)’으로 쓰였는데, 둘 다 ‘이를 갈아내는 가루’라는 뜻이다. 당시 수입되던 치약은 물에 개어 쓰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후 한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 ‘치마분(齒磨粉)’으로 널리 쓰였다.



▲<그림 3> 1930년 10월 8일 『조선일보』에 실린 ‘라이온치마분’ 광고

수입품 목록의 ‘편복산(蝙蝠傘)’과 ‘주산(綯傘)’은 모두 금속으로 된 살에 비단을 씌운 우산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편복산’의 ‘편복(蝙蝠)’은 박쥐의 한자어로, 접혀 있던 금속 살이 펴지는 모양이 박쥐가 날개를 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편복산’과 더불어 ‘박쥐우산’으로도 쓰였다.

서양의 주류도 수입되었는데, 맥주나 포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종에는 25%~3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동아시아에서 원래 ‘맥주(麥酒)’는 보리로 담근 술을 뜻했는데 19세기 말부터는 유럽식 맥주를 지칭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조약문에서는 ‘맥주’로 썼지만 영국과의 조약문에서는 ‘beer’의 중국식 발음을 따라 ‘피아(皮兒)’라고 썼다. 영국에서 수입되던 맥주 중에는 흑맥주도 있었는데 이는 흑맥주를 뜻하는 ‘porter’의 중국식 음역어인 ‘박덕(博德)’으로 썼다. 브랜드를 ‘박란덕(撲蘭德)’으로, 위스키를 ‘유사길(惟斯吉)’로 쓴 것도 중국식 발음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개항 초기 박래품(舶來品)*의 명칭에는 중국식 한자어가 많이 쓰였다.

* 박래품: 주로 다른 나라에서 배에 싣고 들어온 물품을 이르는 말



▲<그림 4> 1901년 6월 19일 『황성신문』에 실린 ‘구옥상전(龜屋商)’ 광고

다양한 박래품은 조선인의 일상을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성냥으로 불을 켜고, 향긋한 비누로 얼굴을 씻고, 칫솔에 치약을 짜 이를 닦고, 비 오는 날 도롱이와 갈모 대신 우산을 쓰고, 시계를 차고 외출을 하고, 사치품에 속하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어느새 낯설지 않은 근대의 풍경이 되었다.

1899년 4월 3일 『황성신문』 논설은 ‘자래화’로 손쉽게 불을 붙이는 요즘 사람들이 힘들게 불을 피우던 옛사람들을 비웃지만 나무와 돌, 그리고 쇠의 원리와 성질을 궁구해 불을 피우던 옛사람들의 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성냥에서 문명의 이기를 느끼는 시대는 이제 한참 지나갔고 일상의 풍경도 너무나 달라졌지만, ‘격물(格物)’의 지혜가 사라져 감을 우려하던 19세기 말의 논설은 인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생각하는 힘을 잃어 간다는 21세기의 비판적 목소리와도 묘하게 닮아 있다.

이민자와의 공존을 위한 새 걸음

이미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박수연 조선대 언어교육원 교육부장 대담



▲왼쪽부터 박수연 교육부장, 이미혜 교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지난해 12월에 발간됐다. 이 교재는 국내 210만여 명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가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에서 기본 교재로 쓰이고 있다.

《침표, 마침표.》에서는 교재 개발의 책임 집필을 맡은 이미혜 교수(이화여대 교육대학원)와 박수연 교육부장(조선대 언어교육원)을 만나 차이와 이해, 그리고 공존에 대해 들어 봤다.

다양한 이민자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필요

《침표, 마침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어떤 교재이며 기존의 교재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미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죠. 이 과정에 맞춰 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까지 총 13권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와 이민자 유형별 보조 자료 4종도 개발했죠. 교재 속 인물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를 나누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재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육 대상이 더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에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는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이나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 등 다양한 이민자 유형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특성을 담되 각 이민자의 특성을 규정하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해야 했죠.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근로자를 표현하는 쉬운 방법이지만 그것 또한 편견일 수 있으니까요.

박수연

그게 참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국에 오는 근로자들은 우리와 업무 협정을 체결한 16개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의 피부색 등 특징을 표현하려다 보면 한국 사회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선표, 마침표.》

재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미혜

저는 1989년에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폭증했는데요. 대개는 어학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대학에서 유학생 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유학생이 급증했고,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2005년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근로자 대상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는 다문화 가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이렇듯 한국어 교육의 영역이 넓어졌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여전히 유학생과 한류 기반 학습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학생과 한류 기반 학습자보다 결혼 이민자와 근로자가 대다수임에도 말이지요. 이런 한계가 나타났던 건 한국어 교육이 대학 부속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양질의 교육과 교재를 개발하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이와 달리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교재 개발은 대부분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보다 전문가 참여가 적고 연구 기간도 짧아서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일례로 대학에서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만 수년간의 연구와 수정을 거듭하는 데 반해 정부 기관에서는 대부분 6~7개월 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에서 2~3년간 진행하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민자나 중도 입국 자녀 등 한국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집중 연구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문화

《선표, 마침표.》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할텐데요. 한국문화를 잘 모른 채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민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박수연

언어를 배울 때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단원마다 ‘문화와 정보’라는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 한국문화와 학습자 문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죠. 예문도 실제 한국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엄선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넣었습니다.

《선표, 마침표.》

이민자의 직업군과 연령대에 따라 관심을 갖는 한국어나 한국문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혜

사실 문화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민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문화와 그들이 실제 필요 내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과 연령대에 따라서도 요구가 다르다 보니, 한국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이민자 유형별로 먼저 파악해야 했죠. 그래서 2018년도 기초 연구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요구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이민자마다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과업이 다 달라 관심 주제나 활동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그 기준을 ‘체류 자격’과 ‘체류 목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국어 학습의 목적이 달라졌는데요.

결혼 이민자의 경우 자녀 교육, 국적 취득을 포함해 생활 전반과 관련한 교육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가점 획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를 장기 체류 비자로 바꾸려면 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가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요구사항이 일반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 유학생들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법’, ‘한국에서 일자리는 구하는 법’ 등 심화된 질문이 있기는 했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이처럼 각기 다른 정보를 보조 교재를 활용해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집필 의도를 이해한 후 교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보통은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서 이민자들의 학습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각자 한국에 온 목적에 따라 이민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의 요구사항을 교재에 다 반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본 교재에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달리 보조 자료는 이민자 체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보조 교재를 많이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국립국어원 배움이음터에서도 1년에 두 차례씩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권이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만큼, 이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더욱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대부분이 대학 기관의 강사보다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인권이나 성 인지 감수성 등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죠.

이미혜

현장의 사례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교육 방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민자 대상 교육은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더 들으려면 소규모 교육을 확장할 필요가 있죠.

《**심표, 마침표.**》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박수연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른 어미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한국어는 교착어라 ‘먹다’ 같은 기본 어간에 ‘-습니다’ 같은 어미가 붙는데요. 상황에 따라 평서문이나 명령문이나에 따라 각기 다른 어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이유, 원인을 표현할 때 “더우니까 문 여세요.”는 되지만 “더워서 문 여세요.”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헛갈려하는 거죠.

또 높임말 사용을 어려워합니다. 높임말을 쓸 때는 연령뿐만 아니라 친한가 그렇지 않은가, 공적인 상황인가 아닌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거든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장기 체류자들은 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공식적인 문서에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미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민자들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성 결혼 이민자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친구 두세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높여야 할지 시어머니의 친구를 높여야 할지 혼동된다는 거죠. 영어 강사는 학교 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학생은 지도교수와 약속을 정하거나 지도받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이민자들은 대체로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법, 격식 있는 상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을 사귀는 게 가장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민자들은 누군가 무엇을 알려주고 조언하면 그것을 듣고 따르는 방식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등의 상황을 다양하게 접해 보지 못한 데다,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 가기도 어려우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대화가 끝나 버리기도 하죠.

《**심표, 마침표.**》

듣고 보니 이민자들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교육 방법도 다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수연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은 아무래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많아지며 중도 입국 자녀의 수도 늘었어요. 물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도 입국 자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교재로 배우는 것보다는 영상이나 음성 기반 학습을 더 선호하죠.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검색약 이름, 인터넷 쇼핑물에 적힌 색깔 같은 것들입니다. 결혼 이민자나 근로자, 유학생과는 관심이 확연히 다르죠. 이처럼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될 거예요.

여러 유형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영상 매체가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드라마 같은 대화의 형식으로 만들거나,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교육하면 통합 교재나 보조 교재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존과 소통,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심표, 마침표.》

말씀을 듣다 보니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이민자와 한국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기에 이민자를 포함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존과 소통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혜

저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얼마 전 어떤 방송에서 누군가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려면 반씩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아지기를 요구하지 말고, 각자가 반 정도씩만 포기하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건 내 것을 표준으로 삼거나 중심에 두고 보지 않는 것이죠.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거나 한국의 것이 표준이라는 시선과 태도는 편견과 왜곡을 낳으니까요. 이와 달리 다양함을 인정하면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소통하는 방식도 터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연

상대와 나의 차이를 먼저 아는 것이 공존의 시작입니다. 차이를 알아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길에서나 차 안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죠. 하지만 그들을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민자를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여기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역사를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자주 만들어지면 대중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할 거예요. 물론 인식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노력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국립국어원 30돌을 축하해 주세요.



국립국어원 30돌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 30돌 기획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2월 8일(월)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심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개원 30돌 기념행사
당첨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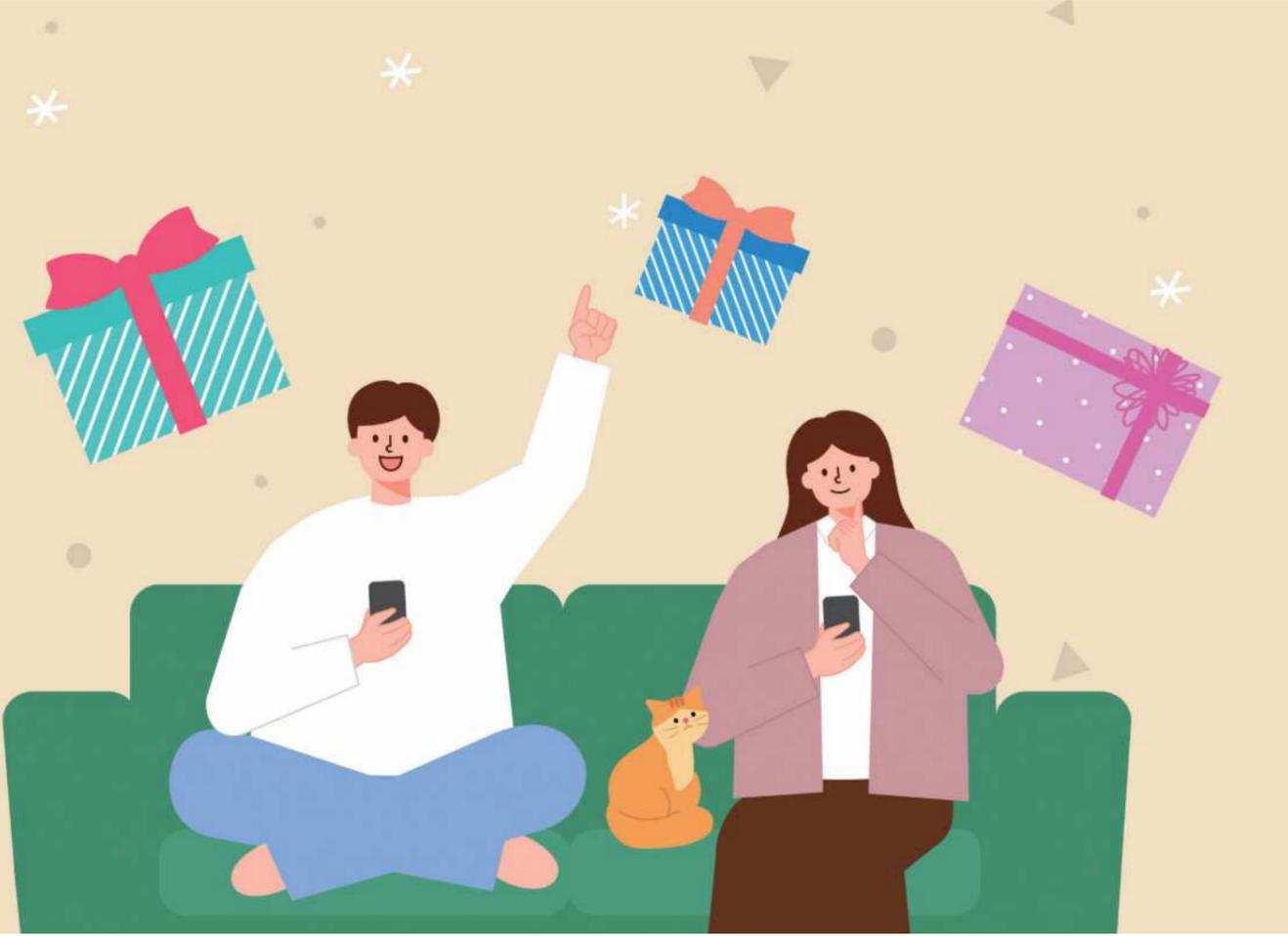
문화상품권(1만 원권)

강*영(4146) 강*형(4667) 강*주(9371) 구*영(3033) 김*란(4833)
 김*애(7096) 김*미(7945) 김*지(9708) 김*정(8999) 김*원(7669)
 김*현(0923) 김*호(2865) 김*우(5582) 남*미(7321) 문*비(7157)
 문*성(6456) 박*우(4806) 박*기(3003) 박*양(0236) 서*훈(8374)
 서*현(6336) 신*은(9760) 양*덕(2896) 유*자(6681) 윤*아(1319)
 윤*범(1351) 이*애(7351) 이*수(0018) 이*현(0882) 이*은(6274)
 이*희(0578) 이*민(6782) 이*수(9959) 이*하(0419) 이*화(4684)
 이*민(8444) 임*민(8976) 장*명(0336) 전*정(3001) 정*아(4151)
 정*수(0382) 조*순(8707) 진*하(4460) 채*희(1230) 채*진(0120)
 최*혜(5609) 최*리(8551) 함*호(0771) 홍*희(5551) 홍*진(4916)

국립국어원

당첨 관련 문의: 070-4214-8228

우리말 풀기



부쩍 눈 소식이 많았던 겨울입니다.
눈이 내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날이 추울 때는 따뜻한 방에 드러누워 독서를 하는 것도 묘미죠.
《심표, 마침표.》를 읽고 우리말 풀기에도 참여해 보세요.

문제 1

‘-데’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ㄴ데’는 어떤 일에 하는 뜻을 나타내거나,
대답을 기대하며 물어볼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2

이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상품 혹은 각광받는 물건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재를 뜻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3

1899년 4월 3일 『황성신문』 논설은 ‘’로 손쉽게 불을 붙이는
요즘 사람들이 힘들게 불을 피우던 옛사람들을 비웃지만
나무와 돌, 그리고 쇠의 원리와 성질을 궁구해 불을 피우던 옛사람들의
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단서 100년 전 우리말 풍경

문제 4

월간지 “새국어소식”이 창간된 해는
‘’년 입니다.

단서 국어원 30년

문제 5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3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단서 국어원 소식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1. 2. 2.~2021.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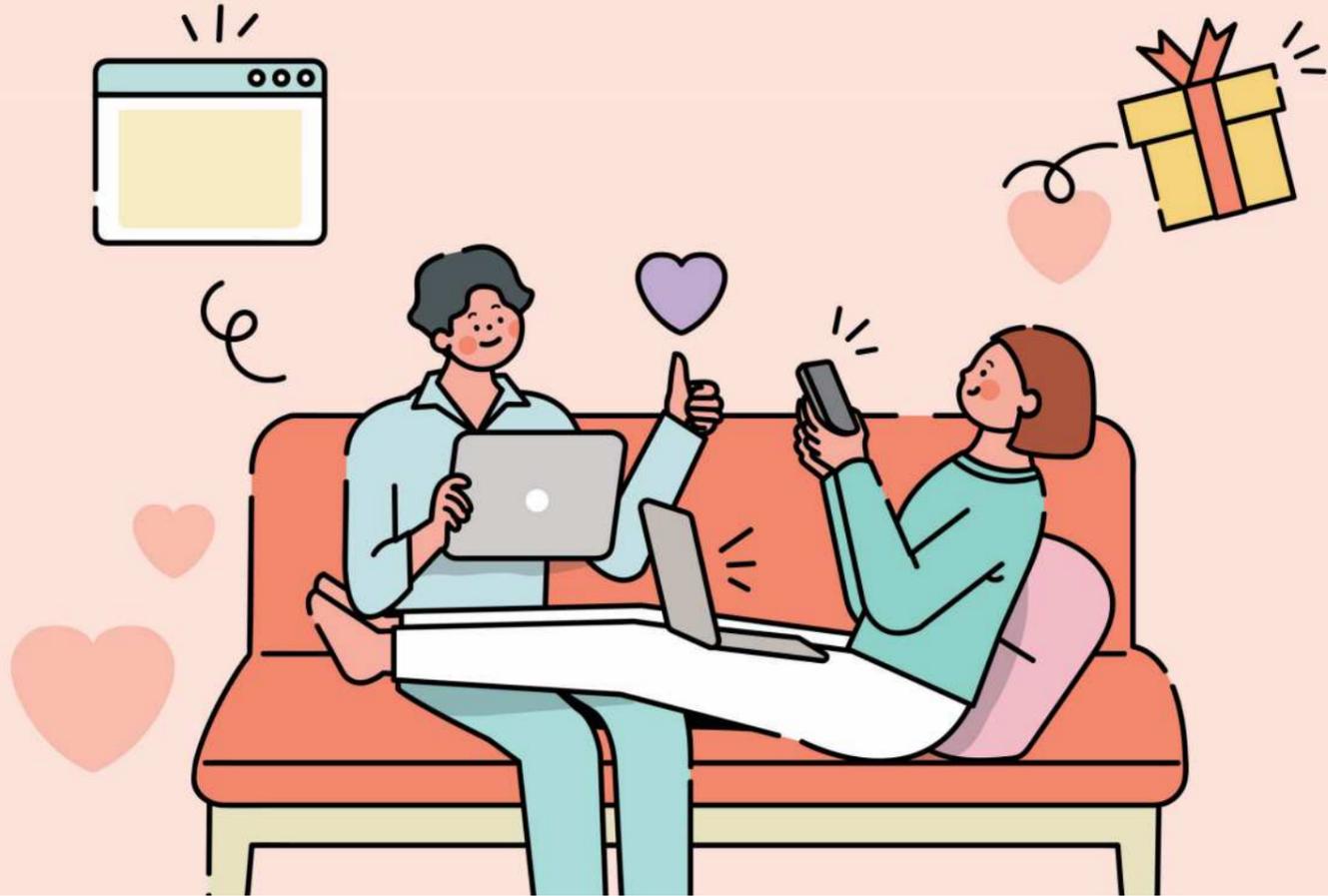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1년 3월 호에 공고함.

2020년 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영(1052) 명*재(7769) 박*연(0134) 박*희(3747)
서*미(8560) 성*아(0186) 신*영(1636) 이*재(1947)
정*옥(2193) 조*모(8097)

우리말 풀기



2월은 일 년 중 가장 짧은 달이어서인지
시간이 유독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분주한 나날이지만, 《심표, 마침표.》를 읽으며
일상에도 잠시 심표를 찍어 보세요.

문제 1

설날은 떨어져 지내는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매년 설이 되면 우리 가족은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모여 설을 어요.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2

배려와 관심 사이에서 최적의 거리는 얼마만큼인가?
그 답은 가 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조금씩
다가가면서 함께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단서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문제 3

이처럼 “표준” 또는 “규범”을 중시했던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을 다 담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사전이다.

단서 사전 두 배로 즐기기

문제 4

는 브레인스토밍을 다듬은 말로
자유로운 토론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일을 뜻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을 진행하는 강사 대부분이
대학기관의 강사보다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 등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죠.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문제 6

2021년은 국립국어원 30돌을 맞는 해입니다.
《쉽표,마침표.》 독자 □,□□□분께서
국립국어원 개원 기념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단서 국어원 소식

2020년 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영(1052) 명*재(7769) 박*연(0134) 박*희(3747)
서*미(8560) 성*아(0186) 신*영(1636) 이*재(1947)
정*옥(2193) 조*모(8097)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 기간

2021. 2. 16.~2021. 3. 2.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1년 3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